

急性藥物中毒

카톨릭 의대 부속 성모 병원
자살 예방 CENTER

이 일 련

Present illness

환자는 전남 남원 지상 향육원에서 자라난 고아로서 그곳 고아원장의 추천서를 가지고 1964년 10월에 상경, Holt 고아원에서 일 하고져 했으나 일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냉정히 거절 당하자 동작동 도로공사에서 노동을 해보았으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그만 두게 되자 처음 올라온 서울 거리에 아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반겨 주지 않으니 이리 저리 방황하던 끝에 의, 식, 주의 곤란, 자신이 가졌던 기대의 실패, 우울, 비관, 열세 등으로 자살 할 것을 결심한 다음 1964. 10. 19. 5 pm 경 시내의 약방을 돌아 다니며 한알 두알씩 quinine 15정을 구입하여 동일 9 p.m 경 서울시 경찰국 뒷 골목으로 올라 가는 한적하고 고요한 이름 모를 골목길 노상에서 한꺼번에 복용, 얼마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coma 상태에 있던 중 다음날 순회하던 순경에 의해 발견, 성모병원 자살 예

방 Center 에 20일 오후 9시 50분에 경찰 백차에 실려 입원케 되었다.

Child-hood History

1946. 6. 24일에 전북 순창군 순창면 남계리, 서판남씨의 차남으로 태어 났다고 한다.

그러나 왜 고아원에 왔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고아원에 데려 왔는지는 모르겠으며 또 자신이 누태여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후에 고향 땅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탐문하여 오래 전에 서씨라고 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판남이라는 것과 형이 하나 있고 동생이 있다는 막연한 대답을 들었을 뿐 그 이상에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한다. 왜냐하면 환자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묻지도 않았다”고 한다. 물론 이 것도 우연히 들게 된 것이지 자기가 알려고 해서 들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하여 그곳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는 것을

臨床看護

모르고 있을뿐 아니라 자기도 부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 하면서 “부모님은 꼭 어디인가 살아계시며 내가 10년 후에 성공하게 되면 만나 보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며 제 뜻이 이루어 질 때 까지는 절대로 부모님을 찾고 싶지 않다고 한다.

환자는 1963년까지 남원 지방 향육원에서 자랐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일 하며 살아 오다가 1963년 3월에 고아원을 떠나 경북 청암사라는 절로 증이 되려고 들어 갔다고 한다. 그러나 거기서도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 끝에 1년 6개월 만인 64년 9월에 여러 승려들의 권유를 뿌리치며 나와 서울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고아원에서 생활

부지런히 일 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원장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어렸을때 부터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대로 지나가는 성격이 아니었다.

방학 때면 여행을 잘 하는데 그것도 원장의 특별한 허락하에 가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 그대로 두지 않고 고아원으로 데리고 온다고 한다.

그럴 때면 소위 자선사업을 한다고 하는 원장이래도 좋은 눈치는 아

니었으며 식구가 느는 것을 꺼려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환자는 여전히 베터왔으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만 마음이 편했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고아원에서 문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장래 유망성있게 보았는지 자기가 한다는 일에 무엇이 될지 잘 허락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방학이면 제주도로부터 남한 일대를 가 보지 않은 곳이 없으며 유명한 고적이나 섬이나 절을 돌아다녀 보았다고 한다.

15세 되던해 중학교 이학년 때 일본을 가려고 일본가는 배를 몰래 타고 갔으나 중간에 발각이 되어 한 국으로 오는 배에 다시 실려 되 돌아 온 적도 있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세계일주를 하면서 땅 넓고 인구 적은 나라를 찾아서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이념시켜 잘 살게 해보고 싶어져서 영어, 독어,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아원을 나오게 된 동기

나이를 먹음에 따라 환자는 자기가 고아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짊이 된다고 느껴졌고 자기 때문에 불쌍한 다른 한 사람이 구제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모두 싫어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 보고 싶었지만 모른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세상을 도피하고 싶어졌다고 한다. “자선사업을 한다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것 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볼 때 너무도 비참함을 느끼며 사람들의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이 세상이 자꾸 싫어졌다”는 것이다. “길에 나가면 추운 겨울에 아낙네들이 아이를 업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등경 어린 눈초리 보다는 찌푸린 눈살을 받아 가며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세상이 비참하게만 생각되어 절로 들어 잘 것을 결심, 아논 중을 찾아가 소개장을 가지고 청암사로 들어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이 되기 까지

청암사에 들어오니 처음에는 불교에 대한 공부와 자기라는 존재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 자존심을 꺾게 만든다고 하며 비록 나이불 많이 먹어도 어린 중에게 매를 맞고 잘못된 일이 없어도 잘못했다고 하면 그 배로 다 받아 들여야만 했다. 자존심을 꺾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이겨 나가기 힘들지만 그러나 덕을 쌓아 갈수록 이런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환자는 자기는 고아원에 있을 때 성당에 나가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산개월 정도는 천주교 생각이 났다고 한다.

“종교는 같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천주님이 만드셨다고 하며 천주님을 믿고 천당을 믿지만 불교는 천주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생각하며 그것의 차이점을 생각도 해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잡념을 버릴려고 노력했으며 2시간 이상 불공을 드리고 싶으면 부처님이 다른 어떤 환상처럼 보이며 마음이 기쁘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불경을 6개월이나 일년 이상 외어야 되는 것을 자기는 4개월에 다 외었다고 한다.

모든 면에 열심하니 윗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제」를 육개월 만에 받았다.

「제」라는 것은 완전히 중이 되는 예식인데 굉장히 큰 잔치라고 한다.

환자는 「제」를 받고 나니 모든 시련이 다 끝나고 육신도 편해 지더라고 한다.

그러나 세상을 버렸다고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결심한 자기의 공부 는 사라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마음을 괴롭혔다고 한다. “내 공부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비웃을 것일라고”하며 늘 마음에 고민꺼리가 되었다고 한다.

臨床看護

하루는 절로 고시공부를 하러 온 대학생에게 이런 사실을 말 했더니 그렇다면 빨리 세속에 나가 공부하여 계단을 밟은 다음에 실천하도록 노력해야지, 세상을 도피하면 되느냐고 하여 힘을 얻어 다시 세속에 나올 것을 결심.

붙잡는 여러 사람들의 품을 떠나 왔다는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을 노친다고 하며 언제든지 오면 다시 받아 줄테니 오라고 했지만 한번 나온 이상 어떻게 또 갈 수 있느냐”고 말한다.

School & Occupational History

국민학교 : 남원 대강 국민학교
중 학교 : 순창 성광 중학교
고등학교 : 남원 남고 2년 중퇴
출석상태 : 결석하지 않았다.
교우관계 : 마음이 통하지 않아 진실한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보통으로 지낼 뿐이다.
선생과의 관계 : 착실하다고 보고 기여워 해 주었음.
성 적 : 남에게 지지않고 우등생이었다고 한다.

Personality

온순하고 정이 많다고 하며 사람들은 계집아이 같다고 놀려 주기도 했다고 말할.

Past Medical History

특기 사항 없음.

입원 후 경과 : coma 상태였기는 하나 전신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음. 경과도 비교적 양호하였다.

Nursing Care and Treatment

제 1일 : 이 환자는 늦게 발견해서 시간도 경과 하였음이 확실하였고 quinine 증독 symptom 이 농후했기 때문에 gastric-lavage 를 할 필요가 없었다. vital sign check 하고 곧 5% D/W 1,000cc I.V. 시작하였음. retention catheterization 한 다음 호흡(28)과 맥박(98)혈압(120/80) 등 vital sign 을 매 30분 간격으로 check 하며 계속 observation 하였음. 더러워진 얼굴과 몸을 깨끗이 닦아 주었으며 구강내와 인후부의 discharge 가 많아 가끔 suction 을 해 주었음.

입원초에는 B.P.가 120/80 이었으나 10:40 pm 에 50/40 으로 내려 nor-adrenalin 1amp. (5% D/W mix)하였음.

11:40 pm B.P. 70/40, 그후 점차 상승하였음.

제 2일 : 0:30 am 에는 B.P. 90/60 이었음.

T.P.R. 별 이상 없었음. 계속 B.P. 90/60~80/50 으로 유지됨으로 별 처치 없었으며 호흡은 3:00 am 경

부터 부드러워지기 시작, 7:20 am 환자 움직이기 시작,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 오며 때때로 깊은 숨과 신음 소리를 냈다. B.P. 90/60 계속 유지 됨. 매 2시간 마다 position change 해 주었음.

1:00 pm 경 부터는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회복됨. 볼도 먹이고 이야기도 시켜 보았으며 자신이 일어 날려고 애를 썼으나 일어나지 못하게 안정상태로 누어 있게 했다.

2:30 pm 경 catheter 뽑아냄. urine 1,000cc out put.

환자 상태 양호한 편이라 특별한 약물요법은 쓰지 않아도 깨어 날 수 있으리라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상태만 살폈다. 저녁에는 죽을 조금 먹여 주었음.

일어나 앉어 있기도 하며 말을 잘 하려 들지 않지만 이야기도 시키고 환자로 하여금 살아 났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위로의 말도 해주며 환자로 하여금 친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별로 말하지 않았다.

밤에 때때로 잠을 잤으며 성격이 온순해 보였다.

제 3일 : 아침식사 죽을 먹고 그대로 조용히 누어 있었다. B.P. 100/60 점심 밥을 먹고 퇴원하여도 되겠으나 갈 곳이 없다고 하여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

그래서 24일까지 병원에 있었다.

Conclusion

환자는 입원 당시의 소견이 두부에 외상도 없고 B.P.도 정상이고 urinalysis 에 sugar 도 negative였다. 고로 이 case 는 C.V.A.나 head injury, diabetes mellitus나 insulin shock 등을 의심할 근거가 없었다. 소지품에서 유서 등이 발견 되었으므로 급성 약물 중독으로 진단되고 특히 안면이 창백하고 dyspnea, 사지의 경도의 강직 등으로 미루어 보아 quinine이 그 원인 약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After Care

환자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우리는 앞 길이 유망한 어린 학생이라 그대로 버려 둘 수 없어 Social Worker 와 수녀님 주선으로 모 병원 세탁부에 취직 알선을 해줌.

현재 열심히 일하며 이제 부터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다 참고 견디며 천주님이 주신 생명을 다시는 제 손으로 끊치 않으며 천주님께서 데려 갈 때까지 열심히 일하며 앞으로 기회를 보아 공부를 하여 어렸을 때의 그 결심, 즉 세계를 일주하여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잔 살게 하기 위하여 이민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보다 타인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한다.